



KIA 타이거즈 출신 이종범(왼쪽) 선수의 아들 이정후(넥센)가 지난 15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야구장에서 열린 2017년 KBO리그 시범경기 넥센과 NC 다이노스의 경기에서 7회초 2사 1루때 타격 후 타구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 ‘바람의 손자’ 넥센 이정후 폭풍타

이제 막 프로에 첫발을 내디딘 신인이지만, 공을 따라가는 천부적인 감각은 아버지와 똑 닮았다.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신인 야수 이정후(19) 이야기다.

현역 시절 ‘바람의 아들’이라는 별명으로 남았던 이종범(47) MBC스포츠플러스 해설위원의 아들인 이정후가 시범경기에서 보여주는 안타 행진은 코치진의 눈길을 끌 만하다.

아직 3경기밖에 안 치렀지만, 이정후는 타율 0.625(8타수 5안타)로 1군 개막전 출전을 향해 조금씩 전진한다.

이정후는 16일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 시범경기에서도 3타수 2안타 1볼넷으로 아무진

이종범 아들…프로야구 시범경기 5안타 타율 0.625

“공을 따라가는 천부적인 감각 아버지와 똑 닮아”

방망이 솜씨를 뽐냈다. 1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한 이정후는 1회초 한화 선발 배영수의 2구를 때려 외야 깊숙한 곳까지 타구를 날렸지만, 체공시간이 너무 길어 야수에게 잡혔다.

두 번째 타석에서는 팀 퍼펙트를 깨는 귀중한 안타를 기록했다.

4회초 다시 배영수를 만난 이정후는 5구를 공략해 중견수 쪽으로 향하는 깔끔한 안타를 때렸다. 1사 후 고종욱의 안타

때 재빨리 3루까지 간 이정후는 김태완의 우익수 뜬공 때 홈을 밟아 이날 넥센의 유일한 득점을 올렸다.

이정후의 방망이는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다.

6회초에는 1사 후 심수창의 5구를 받아쳐 중견수 앞 안타를 기록했고, 8회초에는 2사 1루에서 김용주를 상대해 볼넷을 골라내는 선구안까지 보여줬다.

취문고 시절 주로 유격수로 활약한 이

정후는 시범경기에서 외야수로 전향해 그라운드에 나선다. 이마저도 유격수에서 외야수로 자리를 옮긴 아버지와 똑같다.

장정석(44) 넥센 감독은 “내야 송구에 트라우마가 있더라. 외야에서는 어깨도 강해서 좋은 송구를 한다. 그리고 외야에 나가니 타석에서도 부담을 덜어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좋은 활약을 이어가는 이정후는 개막전 출전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다.

외국인 타자 대니 돈의 컨디션이 완전히 않은 상황에서 기회를 잡은 이정후는 안타 행진으로 ‘꿈의 1군 무대’를 향해 전진한다. /연합뉴스

## 추신수 몸 풀렸다

시범경기 첫 멀티히트

추신수(35·텍사스 레인저스)가 2017년 시범경기 첫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추신수는 16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서프라이즈의 서프라이즈 스타디움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시범경기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전에서 2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 3타수 2안타 1삼진을 기록했다.

추신수는 시범경기 9번째 출전에서 처음으로 멀티히트를 쳤다. 최근 두 경기에서 볼넷 하나씩 기록하던 추신수는 3경기 연속 출루 행진도 이어갔다.

올 시즌 시범경기 타율은 0.125에서 0.211(19타수 4안타)로 올랐다.

추신수는 0-1로 밀린 1회말 무사 1루에서 클리블랜드 선발투수 트레버 바우어를 상대로 2루수 내야 안타로 포문을 열었다.

다음 타자 노마 마자라의 중견수 뜬공에 주자들이 한 베이스씩 진루하면서 1사 2, 3루가 됐다.

이어 마이키 나폴리의 희생플라이에 텍사스는 동점 득점을 했고, 추신수는 3루까지 갔다. 그러나 조이 갈로가 삼진을 당하면서 추신수는 홈에 들어오지는 못했다.

추신수는 1-7로 크게 뒤진 3회말 1사 1루에서 두 번째 타석을 맞았다.

이번에는 바우어에게서 좌전 안타를 뽑아내 1사 1, 3루를 만들었다.

다음타자 마자라 타석에서 바우어가 폭투를 던져 3루 주자 카를로스 고메스가 득점했다. 추신수는 2루에 갔다. 그러나 후속타 불발로 이번에도 득점하지 못했다.

추신수는 5-8로 추격하는 4회말 2사 1루에서는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다.

추신수는 5-8이 이어진 6회초 수비 때 제러드 호잉에게 2번 타자 우익수 자리를 물려주고 교체됐다. /연합뉴스



안치홍 역전 만루홈런, 그러나

주자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한편 KIA는 kt에 5-8로 졌다.

16일 오후 1시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7 프로야구 시범경기’ KIA 타이거즈 대 kt위즈 경기 6회말 무사 만루에서 KIA 안치홍이 만루홈런을 쳐 홈을 밟은 후 선행 주자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한편 KIA는 kt에 5-8로 졌다. <KIA 타이거즈 제공>

## 슈퍼루키냐 노장이냐

LPGA 파운더스컵 박성현-카리 웹 한 조

올 시즌 미국 본토에서 처음 열리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대회에서 박성현(24·사진)이 ‘영원한 현역’ 카리 웹(호주·43)과 맞대결을 펼친다.

뱅크 오브 호프 파운더스컵 조직위원회는 16일(한국시간) 박성현이 웹, 주부골퍼 크리스티 커(미국)와 같은 조에 편성됐다고 밝혔다.

한국의 박세리,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과 함께 LPGA 투어 ‘여왕’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웹은 경쟁자들이 모두 은퇴한 올해도 현역에서 뛰고 있다.

1974년생인 웹은 마흔 살이던 2014년 뱅크 오브 파운더스컵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통산 41번째 우승이었다.

2015년과 작년에는 우승은 없었지만 상위권 입상이 적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5위 이내 입상이 세 번이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팬들의 흥미를 배가시키기 위해 슈퍼루키로 꼽히는 박성현을 LPGA에서 가장 노련한 선수로 꼽히는 웹과 같은 조에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박성현은 현지시각으로 16일 오전 8시6분 10번홀에서 1라운드 티오프에 나선다.

지난해 뱅크 오브 호프 파운더스컵 우승자인 김세영(24)은 세계랭킹 1위 리디아 고(뉴질랜드), 렉시 톰슨(미국)과 같은 조에 편성됐다.

김세영은 작년 이 대회에서 27언더파를 쳐 LPGA투어 최다 언더파 타이 기록을 세우며 우승했다. 최종 라운드에서는 10언더파를 적어내기도 했다.

이달 초 HSBC 위민스 챔피언스를 제패하며 여왕의 귀환을 알린 박인비(29)는 브리타니 린시컴(미국), 유소연(27)과 같은 조다. 전인지(23)는 시즌 2승을 노리는 양희영(28), 폴라 크리머(미국)와 함께 티오프한다. /연합뉴스



## 광주·전남 女유도 활약 눈에 띄네

‘올림픽 銀’ 꺾은 도체육회 강유정 등 금 5개

순천에서 열리는 전국유도대회에 참가한 광주·전남 여자 선수들의 선전이 눈길을 끌고 있다.

리우올림픽 스타를 한판으로 누르는 등 금메달 5개를 목에 걸며 개최지 대표로 자존심을 지켰다는 평가다.

강유정(21·전남체육회)은 17일까지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열리는 ‘2017 순천만 국가정원컵 전국유도대회’ 여자일반부 48kg급 결승에서 정보경(26·안산시청)을 허벅다리 걸기로 한판을 따내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정보경이 리우올림픽 은메달리스트로 전국체전 유도 3연패를 이룬 ‘스타’라는 점에서 강유정의 ‘깜짝’ 우승에 대한 의미가 크다.

김민정(30·전남체육회)도 15일 열린 78kg급 여자 일반부 결승에서 금메달을 땀

고 김지정(21·전남체육회)도 전날 치러진 여자 일반부 63kg급 결승에서 최은솔(인천시청)을 따돌리며 시상대 맨 위에 올라섰다.

순천진흥초 여자 선수들도 대전 전통초와의 조동부 단체전 결승에서 맞붙어 금메달을 확보했다.

광주에서는 리우올림픽 여자 국가대표 출신 김성연(26)이 압도적 기량으로 금메달을 땀고 여중부에서는 김민주(15·광주체중 3년)가 70kg 이하급, 박성은(15·”)이 70kg 이상급에서 각각 ‘금빛 메치기’를 했다.

남자 선수들 중에는 이승수(30·전남체육회)가 일반부 81kg급 결승에서 용인대 선수를 제치고 금메달을 땀고 박찬혁(18·광주체고 3년)이 남고부 55kg급에서 우승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 광주서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

지역 출신 8명 도전

바슬구멍보다 좁다는 양궁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이 광주에서 시작했다. 얼마나 많은 광주·전남 출신 선수들이 태극마크를 달게 될 지 관심이 쏠린다.

대한양궁협회는 16일부터 23일까지 광주 국제양궁장에서 남·여 국가대표 8명을 선발하는 ‘2017 국가대표 3차 선발전’(리커브)에 들어갔다.

현재 8명씩인 남·여 국가대표 16명과 국가대표급 실력을 보유한 남여 공사 16명이 하루 최대 300발씩 7일 간 2100발을 넘게 쏘는 ‘극한경쟁’에 돌입한 것이다. 선발 방식은 70m 거리의 과녁에 36발씩 두 차례 쏘아 기록을 매기는 1회전을 시작으로 조별 토너먼트, 조별 리그전과 숏 어프 방식을 종합해 진행된다.

여자부에서는 최미선(21·광주여대), 기보배(29·광주시청), 이특영(28·광주시청), 이은경(20·순천시청)과 여수 출신의

박미경(34·대전시체육회), 김소연(25·광주여대)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태극마크를 달겠다는 일념으로 선발전 사대(射臺)에 섰다. 최민선(27·광주시청), 정수라(22·광주여대 4년)는 이번 최종 선발전을 거쳐 국가대표에 이름을 올리겠다는 각오다. 최민선 등 8명은 지난 2차 선발전을 통해 뽑힌 재야의 고수들이다.

남자부에서는 김우진(26·청주시청), 구본찬(24·현대제철), 이승윤(22·코오롱엔스텐보이즈) 등 리우올림픽 대표와 임동현(청주시청), 김종호(국군체육부대), 오진혁(현대제철) 등 현재 국가대표들과 신재훈 등 재야 대표들 8명이 맞붙는다.

대한양궁협회는 8명을 대표로 뽑은 뒤 두 차례의 월드컵 대회 결과를 종합, 맥시코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할 남녀 대표 3명씩 선발한다. 아울러 대만에서 열릴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에 나설 대표팀(남·여 각 3명)도 뽑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